

시론

조지아가 제2의 할리우드가 된 이유



주정민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미국 조지아 대학 파견 근무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가 영상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영화와 TV제작물 중심의 영상제작 산업은 미국 내에서 할리우드 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영화 촬영을 위한 방음 스튜디오인 사운드 스테이지가 410만 스퀘어피트(약 11만5천평)에 달해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이다.

2022년 기준으로 조지아주 내에서 영상제작비로 44억 달러(약 6조 원)가 투입됐다. 영화 32편, TV 영상물 200편을 포함해 총 412편이 제작됐다. 410여개의 영상제작업체에서 13만7천명이 일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영화 상위 6편 중 4편이 조지아에서 만들어졌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어벤저스: 엔드 게임',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그리고 '블랙 팬서'다. 넷플릭스에서 최고 스트리밍을 기록한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도 이곳에서 제작됐다.

LA 등지에서 영화감독과 스텝, 제작사 등이 조지아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조지아 내의 영상 프로덕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

고, 스튜디오 제작과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트릴리스 등 기존 스튜디오는 계속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NBC유니버설, 그레이 텔레비전 등 유명 프로덕션들도 조지아에 스튜디오를 건설하고 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유명한 목화밭 장면 촬영지였던 조지아는 최근 스튜디오 중심의 제작기지를 벗어나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과 마케팅을 아우르는 영상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조지아가 영상산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환경, 영상 인력공급 체계 구축,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다.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는 날씨가 온화해 최적의 거주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물가도 캘리포니아보다 낮아 제작비와 생활비가 적게 든다. 강과 바다, 시골과 도심, 들과 사막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영상 촬영지에도 최적지다. 여기에 애틀랜타 도심과 20분 거리에 '하트필드-잭슨' 국제공항이 있어 국내외로 이동이 편리하다.

디자인과 영상으로 특화된 '사베너 아트 스쿨(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과 트릴리스 스튜디오(Trilith Studios)에 있는 '조지아 필름아카데미(Georgia Film Academy)'에서는 우수한 영상제작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조지아 주내 28개 대학과 협력해 영상 관련 실습과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후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조지아주 정부는 50만 불(약 6억7천만 원) 이상을 투입하는 영상작품에 투자비의 20%에 해당하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제작물의 엔딩 크레딧에 조지아주의 프로모션 로고를 표시하면, 추가로 10%의 세금 환급을 하고 있다. 이 공제금은 크레딧 형태로 제공해, 주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2023년 세금공제 금액은 총 13억5천 달러(약 1조8천억 원)에 달한다. 이 돈은 결국 조지아에 다시 투자되는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지아는 영화제 등 영상산업의 기반도 든든하다. 대표적으로 1973년에 시작된 '애틀랜타 영화제(ATLFF)'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영상축제다. 1999년부터 조지아 대학이 운영하는 '피바디 어워드(Peabody Awards)'는 방송 분야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상이다. 이러한 영화제 및 시상제도는 많은 사람이 조지아에 관심을 두게 하고, 관광과 쇼핑 등으로 연계되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영화 제작관리 시스템 개발회사 셋 히어로(Set Hero)는 조지아주 심장인 애틀랜타를 미국에서 영화제작에 가장 적합한 도시 1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누구나 인정하는 영상제작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조지아는 이런 장점을 활용해 영상산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한류 콘텐츠'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社說

이번엔 게임...5·18 헌법 전문 수록돼야 왜곡 막는다

강기정 광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청했다. 제44주년 기념식 참석과 함께 건의했으나 되풀이되는 5·18 왜곡, 폄훼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처방으로 언급한 것이다.

최근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게임 '그날의 광주'가 북한군 침투설 차용 논란에 휩싸였다. 1980년 광주 급남료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벌이도록 설정한 게임으로 아이템을 사면 북한군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는 등 비판을 샀다. 이에 로블록스는 사과문을 내고 게임을 삭제했다. 5·18 기념재단은 제작자와 제보자인 초등생을 성희롱한 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강 시장은 "이미 누적 1만5천명이 게임을 통해 선을 넘는 경험을 했고, 5·18 왜곡과 폄훼에 익숙해지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게임 내용에 문제 의식을 갖고 분명한 거부와 반대의 뜻을 밝힌 평범하고 건강한 초등학생 시민이 있다는 사

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 것이다. 광주시는 공론화의 실마리를 제공한 부산에 사는 해당 학생을 초청, 격려한다.

온라인 게임을 매개로 한 충격적 사건이다. 해괴하다. 5·18을 조롱, 희롱거리 삼아 친숙한 형식으로 수많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거부감 없이 빠르게 퍼뜨렸다.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 국가의 보편적 가치로 존중받는 상황이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개헌을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 또는 이념 등 문구를 넣고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등도 병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가오는 44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이 자리해야 한다. 그리고 공식화되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까지 여야 정치권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에 동참을 촉구한다.

지상 1-3층 존치 확정아파트 안전성 신뢰가 관건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철거가 비주거(상가)층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비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밀진단 결과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지상 1-3층 존치에 동의했다. 투표에는 입주 예정자 780명 중 688명(88.2%)이 참여해 이 중 75.3%가 찬성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추후 진단 결과를 토대로 문제없다고 판단될 경우 투표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당초 화정아파트는 상가층을 뺀 '반쪽 철거' 논란이 불거졌으며 입주예정자의 뜻을 존중해 전면 재시공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 해체 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났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던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부 축소 범위를 놓고 입주예정자들이 찬성의견을 냈다. 물론 이전과 크게 달라진 않았다. 정밀진단을 전제로 수용한 때문이다. 앞서 입주자협의회는 철거 범위에 비주거 구간이 포함돼 공사 기

간이 1년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현안 측에 축소 범위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현안은 철거 범위가 줄어들 경우 해당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거실 창호 변경, 경관 특화 등 9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사였다. 누구나 상상하기 힘든 일로 시민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현안 측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철거와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사 상황을 낱낱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투표에서 비주거 시설 존치에 대한 반대 입장이 눈에 띄어 보인다. 진단 검사를 한 치의 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 재판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게 관건이다.

부실 시공에 따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이 더 제고해야 할 때다. 거듭 강조하지만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기고

공원은 누구의 것인가?



김길수

사단법인 생명의 숲 대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도시의 공간적 해독제로서 공원이 갖는 힘을 새삼 실감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원은 커 큰 나무와 그늘, 드넓은 잔디밭, 평화로운 호수, 파란 하늘과 물결구름의 그림 같은 조합 정도만 여겨지곤 한다.

공원은 도시의 그 어떤 공간보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취급 받는 도시의 비주류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4월 어느 날 광주의 대표 선행공원인 푸른길공원에서 봄맞이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푸릇한 나무들을 보니 과거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자고 피켓을 들며 광주시청 앞에서 외쳤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 시절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광주 시내를 관통하며 오가던 기차길이 지금의 서광주역 쪽으로 이설되면서 철길에 놓였던 레일과 침목은 하나 둘씩 제거됐다.

기차 소음에서 해방된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폐선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8km에 달하는 푸른길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했고, 매년 전국에서 찾아오는 선진지 장소로 광주 대표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광주는 무등산 줄기가 흘러 만들어진 오리

(운림·방림·양림·덕림·유림)이 있었지만 그 중 유림은 도시개발로 사라지고 그 흔적을 알리는 두 아름뚝의 한 토막 나무가 광주역 시민속박물관에 전시돼 있을 뿐이다.

남아 있는 숲도 훼손이 되고 개발로 협소해진 상태다. 고층아파트 단지에 매몰된 숲은 쾌적한 환경을 잡식해 버린 것이 현실이었다. 점차 숲이 줄고 있는 와중에 다형스텝 게도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광주시는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재정공원사업으로 나눠 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최근 중국 남부지역과 사막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눈을 볼 수 없었던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인근지역 사과농사도 망했다는 소식은 가뭄과 장마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응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원과 숲의 가치는 매우 크다.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상식이다.

2027년까지 광주시가 조성하게 될 공원은 909만㎡ 이곳에 푸른숲이 만들어진다 고 생각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다.

이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우리 시민으로선 바람직한 사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유재산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갖고 공공자산이 된다는 것은 실익을 떠나 환영해야 한다는 소견이다. 물론 개인 토지소유자는 불

만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 공원으로 지정돼 오랜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불만일 것이다.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어려움도 엿보였고 많은 질타도 받았다.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주요내용이다. 광주시는 비공원시설 비율을 평균 9.6%로 낮췄고, 이는 전국 평균 비공원시설 비율 19.9%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낮다는 점은 행정의 수고로움이 깃들여 있다.

더불어 민간공원 추진자가 정해진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익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도 있다는 점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공공재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이 2023년 기준 6.3㎡에 비해 2027년에는 12.3㎡로 늘어난다는 것은 여유로운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경기침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순조롭지 못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푸른길공원 조성 당시 시민단체와 인근주민, 그리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 많았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공원에 심었던 작은 나무는 어느새 울창한 숲이 돼 있었고, 그만큼 성숙한 눈이 돼 바라보는 길이 돼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공원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스스로가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순조롭게 본 사업이 이뤄지기를 기원해본다. 공원은 내 소유는 아니지만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나의 공원, 이런 공원이 많은 도시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독자투고

마약 근절 위해 유입·유통 인식 변화해야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의 유입과 유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밀수 조직원들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600억 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kg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해 유통조직원들에 의해 강남 클럽 등 전국으로 유통했다고 보도했다.

앞선 보도를 통해 마약이 지속적으로 국내

에 반입돼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많은 양의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대적인 마약범죄 수사 및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마약의 유통을 차단하고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알리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 증가하고 있

는 마약 사건·사고를 통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민·관이 하나가 돼 마약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약이 현재 우리 주변에 유통되고 있고 이를 투약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이상 마약범죄는 먼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파고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엄중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이주호·정홍경철서경비안보과>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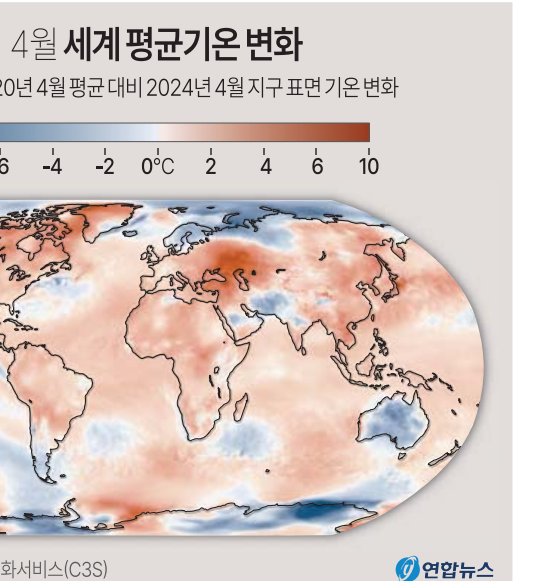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4월 세계기온 15도 넘었다...11개월 연속 '가장 더운 달' 기록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서 지난달 기온이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FE와 DPA 통신 등에 따르면 C3S는 이날 내놓은 월보에서 올해 4월 전세계 지표면 평균기온이 15.03°C를 기록해 역대 4월 중 가장 더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12개월간 전세계 평균기온은 1991-2020년 사이보다 0.73°C, 1850-1900년 사이 추정치보다 1.61°C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유럽의 4월 평균기온은 1991-2020년 사이 4월 기온보다 1.49°C가 높아지면서 유럽 역대 두 번째로 더운 4월로 기록됐다. 지난달 전 세계 해수면 온도도 21.04°C를 찍어 4월로는 가장 더웠고, 13개월 연속 월별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C3S 관계자는 온실가스 증가하면서 해양과 대기에 갇힌 에너지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새로운 최고치를 향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